



#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도팀

## 뉴스초점

### 난가 제값 받기 필요성 제기

#### 할인 폭 줄이고, 후장기 없애도록

농가에서 계란을 출하할 때 상인과 오래 전부터 고질적으로 적용되어온 이중시세, 후장기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생산자들이 이 같은 나쁜 관행을 고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난가가 하락할 때 어김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까지 존속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본회 위생·방역대책위원회 구성

#### 점진적 질병 퇴치계획 마련키로

본회는 양계산물 생산에 관련된 위생방역에 관한 조사, 연구, 지도 및 보급과 이 분야를 통해서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조정을 도모하여 양계경영의 안정적 발전과 안전한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으로 축산진흥에 공헌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일 공식으로 위생·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식)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일은 닭 질병 예방관리로 생산원가 절감과 국가방역의 효율화 촉진, 질병예방과 식품위생의 연계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 질병의 근원차단으로 생산농장에서 질병 리스크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부위원장에는 김순재(건국대 대우교수)박사와 한재권(강남농장) 대표가 선출되었다.

### 양계자조금 입법화 등의 시명을 높여

#### 지부·분회 호응속에 목표 달성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3개 단체가 추진하

고 있는 자조금 의무규정 입법화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동의 서명작업이 예상대로 양계인들의 높은 호응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본회 회원은 물론 비회원까지 자조금 의무규정 입법화를 위한 동의 서명작업에 자발적인 참여를 보내 향후 자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7월말까지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으나 홍보부족과 회원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8월까지 연장하여 동의서를 받았다. 본회는 계속해서 자조금 의무규정 입법화를 위해 각 축산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나갈 예정이다.

**여름 무더위로 양계산을 생산량 감소  
수해 및 폭염 피해로 큰 손실**

금년 여름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커서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의 집중호우와 연일 35℃가 넘는 폭염으로 생산성 저하는 물론 폐사현상까지 나타나 예년에 비해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실제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량은 현저히 감소하여 출하가격이 일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계도 생산성이 저조해져 육용계의 경우 병아리 가격이 말복 이후 상승세가 이어져 업계의 흐름이 바뀌는 일이 있어 농가의 입추에 다소 혼선이 야기되는 사례도 있을 정도였다. 기온이 낮아지면 생산량은 사육수 증가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어서 다소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닭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강화  
중전 500㎡에서 150㎡로 기준 높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면 닭의 경우 중전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면적이 500㎡로 되었으나 개정령에는 150㎡로 강화되어 계분처리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 양계장의 경우에는 계분처리시설이 잘 갖추어져 계분의 노상건조나 농지로의 유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극히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이처럼 기준이 강화되면 행정단속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계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경영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  
9월 10일까지 의견수렴 후 수입재개**

지난 1997년 말 홍콩에서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나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두고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이의제기로 인하여 2년여만에 수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 있다. 이번에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고시 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개정내용은 중국에서 실시하는 방역 프로그램 결과를 매년 한국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살모넬라의 경우 타이피유리움이 추가되었으며, 승인 받은 작업장과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육된 가금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인푸루엔지는 검사자료를 매 6개월마다 통보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농림부로 9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양계**